

구약논찬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

이 은우(장신대) 구약 축전의 발전과정 연구:

유월절(חג פסח)과 무교절(חג המצות)의 관계 155

본 논문은 종교사적 연구를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을 밝히고, 두 절기가 어떻게 결합되어 지켜지게 되었는지를 보인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두 절기가 시기적 근접성 그리고 방법론적 유사성 때문에 결합되어 함께 지켜지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또한 그 이후의 단계인 신명기 법전과 포로기 이후의 발전과 재해석의 과정을 다룬다.

Lee, Eun Woo Religious Historical Study on the Cohesion of the Feasts of
Passover(חג פסח) and Unleavened Bread(חג המצות) 155

구약 축전의 발전 과정 연구: 유월절(חג המצות)과 무교절(חג שבועות)의 관계

이 은우 | 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유월절은 오순절(칠칠절), 초막절(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을 경험한 유월절이 있는 달은 한 해의 첫 달(‘니산’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아빍’은 가나안식 이름이다)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지켜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도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으로 고백하며 두 사건을 유형론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 유월절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두 절기 중 어느 것이 먼저 존재했는지,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는지, 어느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두 절기가 결합해서 지켜지기까지의 과정을 본문 중심의 이스라엘 종교사적 연구를 통해 밝혀 보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를 위해 저자는 최근의 오경 연구와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을 소개하고, 이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2.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및 기원에 대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만, 두 절기의 전역사와 결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르다.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유월절의 기원을 상당히 후대로 간주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의 통합이 요시아 때의 신명기적인 제의 중앙화가 이루어질 무렵에야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노트(M. Noth)는 유월절을 수 5장의 '길갈 전승'과 연결하며,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 전승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크라우스(H.J. Kraus)는 고대 유월절 관례와 무교절이 포로기 이전에 합쳐져 길갈 절기 축전(수 5: 1-12)에 이런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¹⁾ 반면에, 쿠취(E. Kutsch)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처음 결합된 것은 포로기이며, 수 5장 10-12절을 이 시기의 것으로 주장한다.²⁾ 메이(H.G. May)는 무교절이 유월절보다 앞선 것으로 보며, 포로 이전의 출애굽 관련 의식은 희생제물과 초태생을 드리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출 12장 1-28절은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P 자료에 속한다.³⁾ 다른 한편, 폰 라트(von Rad)와 자이트(C. Seitz)에 의하면 신명기는 유월절에 대한 보도에 무교절 절기를 포함하여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⁴⁾ 원래 세갈(J. B. Segal)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처음부터 하나의 절기였으며, 유월절이 한 주간의 시작을 알렸으며, 무교절이 그 주간의 끝을 알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본문들에서 자료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⁵⁾ 레빈슨(B.M. Levinson)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처음에는 전혀 관계없는 절기였으나, 신명기의 저자들이 제의의 중앙화를 위해 순례

1) H. J. Kraus, "Zur Geschichte des Passah-Massot-Festes im Alten Testament," *EvT* 18 (1958), 65-67쪽.

2) E. Kutsch, "Erwaegungen zur Geschichte der Passafeier und des Massotfestes," *ZTK* 55 (1958), 34-35쪽.

3) H. G. May, "The Relation of the Passover to the Festival of Unleavened Cakes," *JBL* 55 (1936), 65-74쪽.

4) G. Seitz,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BWANT 93), (Stuttgart: Kohlhammer, 1971), 196-98쪽.

5) J. B. Segal, *The Hebrew Passover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 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174-80쪽.

절기인 무교절을 세속화하고, 유월절을 중앙 절기화하며 결합했다고 주장한다.⁶⁾ 반 더 메어(M.N. van der Meer)는 제2 성전 시대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단일 축전으로 결합되어 유월절 저녁 축전과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는 축전으로 지켜졌다고 주장한다.⁷⁾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과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다양하며 그 일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어원적 연구에서 출발해서, 이들과 관련된 본문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과 결합

1) 유월절의 의미와 기원

유월절은 이집트월 14일에 거행되었다. 유월절과 비슷한 시기에 거행된 희생제사가 ‘고대 지중해 연안’ 세계에도 있었다.⁸⁾ 첫째 달 중순 밤에 거행된 희생제사에 대한 기록이 ‘에마르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⁹⁾ 한 달의 중순의 보름달은 밤 제의에 충분한 빛을 제공하는데 보름달이 지나가기까지 희생제물을 먹는 내용이 ‘우가릿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¹⁰⁾ 흠 없는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나, 고기를 신에게 바치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흔히 행해졌다. 머리, 다리, 내장을 특별히 처리해 바치는 행위는 이집트에서 행해진 제의였다.¹¹⁾

유월절(Passover Feast)을 뜻하는 히브리어 **פסח**(페사흐/유월절)의 어원은 명

6) Bernard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53-97쪽.

7) M. N. van der Meer,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oston: Brill, 2004), 395쪽.

8) 흔히 이 지역을 말할 때 ‘고대근동’(Ancient Near East)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것은 서구 유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보는 관점이다. 아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은 서쪽에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지역을 ‘고대 지중해 연안’이라고 표현한다.

9) 에마르(Emar)는 후기 청동기 시대(14-12 BCE) 시대 시리아의 도시로 이 지역에서 많은 고대 문서, 특히 제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C. Meyers, *Exodu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96쪽.

10) C. Meyere, *윗글*, 96쪽.

11) W.H.C. Propp, *Exodus 1-18*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8), 396쪽.

확하지 않지만, 주변 언어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달래다”, “부드럽게 하다”, “유연한”을 의미하는 아카드어 *paššahu*와 어원상으로 유사해 보이며, “기념”을 의미하는 이집트어 *sh*나 “추수”를 의미하는 *sh*, “재앙”, “타격”을 의미하는 *sh* 와도 어원상 유사해 보인다. “분리”, “구별”을 의미하는 아랍어 *fs*와도 유사하며, 시리아어 *pešha*와도 유사하다. 칠십인역과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πάσχα*, 요세푸스는 *πάσχει*로 번역했다.¹²⁾ 히브리어 사전은 *פסח*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 명사의 세 가지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는 동사형(*pāsaḥ*)으로 “절뚝거리다”, “넘어가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인데, 출 12장에 세 번 나타난다(출 12: 13, 23, 27). 왕상 18장에서는 동시에 두 신을 쫓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태도(21절)와 비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의 제단 주위를 도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둘째는 형용사형(*pāsēaḥ*)으로 “절뚝거리는”이라는 의미로, 사울의 손자 므비모셋 (“절뚝발이”; 삼하 4: 4; 9: 13; 19: 26)과 희생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흠 있는 짐승 중 “절뚝발이”인 것(신 15: 21)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셋째는 명사형(*pesaḥ*)으로 유월절 자체를 의미할 때,¹³⁾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족속의 집은 넘어가신다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¹⁴⁾

키일(O. Keel)은 모세 이전 시대의 ‘폐사흐 의식’에서 귀신 잡는 사람이 경충거리며 뛰는 춤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지하긴 힘들다.¹⁵⁾ 어원상으로 볼 때 *פ*는 동사 *pāsaḥ*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의미는 “보호하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¹⁶⁾ 악마적 세력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피 액막이의 기능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결합한 것으로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준다. ‘피-의식’은 고대 사회의 다소 원시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나 사상적으로 후대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¹⁷⁾ 이 의식은 마지막 재앙을 전제하고 있으며

12) *ABD*, vol. 6, 755; L. Koehler and W. Baumgarte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Leiden: Brill, 2001), 947-948쪽; Roland De Vaux, 『구약시대의 사회풍습』 (이 양구 역) (서울: 기독교문사, 2003), 222쪽.

13) Godfrey Ashby, *Go out and Meet Go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52쪽.

14) 나훔 M. 사르나, 『출애굽기 탐험』 (박 영호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4), 175쪽.

15) O. Keel, “Erwaegungen zum Sitz im Leben des vormosaischen Pascha und zur Etymologie von *פסח*,” *ZAW* 84 (1972), 428-34쪽.

16) E. Otto, “*pāsaḥ pesaḥ*,” *TDOT* vol. 12, 1-24쪽.

17) 한 동구, 『세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방과 정화 이야기: 출 6장 2절 - 13장 16절의 신학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신학적으로 정립된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적지 않은 학자들은 유월절과 베두인 의식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유월절의 유목 혹은 반(半)유목민적 기원을 제안한다.¹⁹⁾ 드보(R. De Vaux)는 출 12장의 유월절과 베두인 의식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제사장의 개입이 없다. 2) 제단과 무관하다. 3) 피를 뿌리는 의식이 등장한다. 4) 특히 피를 문설주나 천막의 말뚝에 바른다. 5) 피 뿌리는 의식의 의미가 같다(악령을 지나가게 함). 또한, 이들 사이의 세부적인 유사성이 더 있는데, 그것은 제물을 불에 구워 먹는 것,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야생초를 먹는 것 등이다. 이것은 여행을 위해 최대한 손이 적게 가게 한 간소한 식사를 상징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 의식은 일종의 이동을 위한 의식에 해당한다.²⁰⁾ 출애굽기의 분위기는 오랜 기간 ‘유목민의 이동을 위한 의식’으로 존재하던 유월절 절기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신화화되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하기 위한 의식으로 바뀌는 느낌이 든다. 물론 웬바크(Wambacq) 등은 유월절과 고대 유목 절기 사이의 연관성이 너무 보편적이라며 둘 사이의 출처를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여전히 유월절 기원에 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유월절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켜졌던 유목민의 봄철 축전이었던 것이다. 에마르나 우카릿 문헌 등의 예에서도 보듯이 유월절 예식은 춘분 전 만월에 열리는 밤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²²⁾

분석」 (서울: 한울출판사, 2009), 194쪽.

18) 구약성서에 나타난 피 개념의 시대에 따른 변천 양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 동구, 윗글, 191-194쪽을 참고하라.

19) Roland De Vaux, 윗글, 222-23쪽.

20) 차 준희, 『출애굽기 다시 보기』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4), 112쪽.

21) Hartley, J. E. *Leviticus* (WBC), (Waco: Word, 1992). 김 정열 역, 『레위기』 (WBC 성경주석 4) (서울: 솔로몬, 2006), 742쪽.

22) Godfrey Ashby, 윗글, 52-53쪽; C. Meyere, 윗글, 96쪽.

2) 무교절의 의미와 기원

무교절(Feast of Unleavened Bread)은 히브리어로 **חַמְצוּת** (하그 함마초트)이다. **חַמְצוּת**(함마초트)는 명사 **חֶמֶץ**(마차)의 복수형으로, 단·복수 합쳐 구약에서 54번 나오는데, 무교절을 뜻하는 **חַמְצוּת** (하그 함마초트/무교절)라는 표현은 9번 나타난다.

חַמְצוּת (마초트)는 히브리어에서나 다른 셈어에서 어떤 만족할 만한 어원을 찾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 용어가 “빨다”, “흡수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어근 **חָצַץ**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으나,²³⁾ 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חַמְצוּת은 ‘밀 빵’과 구별되는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보리 빵’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땅에서 봄철은 보리 추수기로, 무교절인 ‘마초트’의 7일 절기는 봄의 추수를 축하하는 농사 절기로 여겨졌다. 그것이 일어나는 달의 이름은 아빔월로서 ‘새로 나온 보리의 새 이삭들을 의미한다.’²⁴⁾ 성경에서 레 23장과 수 5장은 무교절이 농경과 관련 있음을 말한다. 레 23장 10절은 무교절이 첫 곡식을 거두는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선언하며,²⁵⁾ 레 23장 15절은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수 5장 11절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봄의 신년 절기에 이레 동안 즐기는 예식의 형태는 후기 청동기 시대 시리아 -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형적이었다.²⁶⁾

3) 유월절과 무교절의 결합

위의 의미와 기원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은 유목민의 봄철 목축 절기, 무교절은 봄철의 농경 절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두 절기가 하나의 절기처럼 합쳐진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우선 두 절기는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두 절기는 시기적으로 봄철의 절기였다는 유사성이 있다. 둘째, 두 절기 모두 무교병을 먹는다는 점이 유사하다. 유월절을 유목민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동’의 편의를 위함이었을 것이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햇곡식의 추수와 관련이

23) Kellermann, “חֶמֶץ maṣṣâ; חַמְצוּת maṣṣôt,” *TDOT* vol. 8,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495쪽.

24) 나훔 M. 사르나, *윗글*, 174-177쪽.

25) Roland De Vaux, *윗글*, 227쪽.

26) C. Meyers, *윗글*, 98쪽.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²⁷⁾ 누룩은 지난해 추수한 것으로 만든 것이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과 시기적으로 유사한 두 절기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며 새로운 출애굽과 해방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고백 되고 재해석되었다. 그 후 두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 결합되어 하나의 절기로 인식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절기와 관련된 본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한 종교사적 연구

1) 오경 안에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1) 오경 연구의 최근 동향

볼츠(P. Volz)와 루돌프(W. Rudolph)가 E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후 많은 학자가 오경 안의 E 자료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인다.²⁸⁾ 최근에는 많은 학자가 J 자료의 존재 역시 거부한다.²⁹⁾ 물론, 반 세터스(Van Seters)나 레빈(C. Levin)같은 학자는 여전히 J 자료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들에게는 야히스트(Yahwist)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서술자이다.³⁰⁾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많은 주류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다수 학자들 – 특히 유럽의 학자들 – 은 J 자료의 존재를 부인하며, P 에 속하지 않는 자료를 단순히 비제사장 자료(non-Priestly material)로 부른다. 이 연구에서 저자도 제사장 자료층 이외의 자료(J, E, N, L)를 비제사장(non-Priestly) 자료층이라 부른다.

27) 차 준희, 윗글, 114쪽.

28) P. Volz and W. Rudolph, *Der Eloh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Giessen: Alfred Toppelmann, 1933); W. Rudolph,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BZAW 68), (Berlin: Tpelmann, 1938).

29) A. G. Auld, J. Blenkinsopp, E. Blum, J. C. Gertz, W. Johnstone, R. G. . Kratz, T. C. Roemer, K. Schmid, M. Witte 등). 참고 J. C. Gertz, K. Schmid/M.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Berlin:NY: Walter de Gruyter, 2002).

30) J. Van Seters, "The Pentateuch," *The Hebrew Bible*, S. L. McKenzie/W. P. Graham (eds), (Louisville KY: John Knox, 1998), 3-49쪽; C. Levin,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T. B. Dozeman and K.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131-141쪽.

(2) 비제사장계 자료층(non-Priestly layer)에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³¹⁾

① 출 12장 21-23절

출 12장 21-23절(non-P)은 유월절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은 아직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순례절기(ἵε)가 아닌 가정 절기로서의 성격만 지닌다. 여기서의 가족 단위로 어린 양만을 도축하라고 요구한다(출 12: 21). 가족 단위의 도축은 정착하기 이전의 유목민적 기원과 관련이 깊다.³²⁾ 여기서 양의 피를 우슬 초에 발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칠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는 초기 전승이 유월절을 마귀적 사자에게서 가정을 보호하는 ‘액 막음’(apotropaic)의 의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출 23장 14-19절

출 23장 14-19절은 이스라엘의 남자가 한 해에 세 번 지켜야 할 순례절기(ἵε)인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는 계약법전(출 20: 22 - 23: 33)의 일부분으로, 여기서 유월절은 아직 순례절기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무교절만이

31) 비제사장계 자료층(non-Priestly layer)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민수기에서 끝난다. 제사장계 자료층(Priestly layer)이 일반적으로 제사장계 작가로 불리는 저자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면, 비제사장계 자료층은 전통적으로 J, E로 일컬어지던 것으로,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궁켈(H. Gunkel)의 제자인 그레스만(H. Gressmann)의 주장을 따르는데, 그는 이 자료층이 그 이야기 자체보다 더 오래된 일련의 전승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비제사장계 자료층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궁켈과 그레스만의 주장을 철저히 따르는 렌دت로프(R. Rendtorff)나 블룸(E. Blum), 카어(D. Carr)의 견해도, 비제사장계 자료층이 수집될 때 이미 존재한 중요한 전승의 집합체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 자료층을 수집한 편집자가 이 전승들을 과격하게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발견될 때의 모습 그대로 보존했다고 주장한다. 참고 H. Gressmann, *Mose und seine Zei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3); R. Rendtorff,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trans. J. J. Scullion: JSOTSup 8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E. Blum, *Die Komposition der Vae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er Verlag, 1984); D. M. Carr, *Reading the Fracture of Genesis: Historical and Literary Approaches*, (Louisville, KY: John Knox, 1996), T. B. Dozeman (ed.), *Methods for Exod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67-68쪽. 둘째는 폰 라트(G. von Rad)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로, 이들은 비제사장계 자료층을 본질적으로 다른 자료들을 다루어 그것들을 사용해 초기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를 창조한 역사가로 본다. 참고 G. von Rad,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dinburgh: Oliver & Boyd, 1965); T. B. Dozeman(ed.), *Methods for Exod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68쪽.

32) Bernard M. Levinson, *윳글*, 59쪽.

지방성소로 찾아가 지켜야 할 순례절기로 언급되어 있다. 무교절은 아빱월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야 하는 절기로 언급되는데, 여기서 무교절이 출애굽과 연결된다.

③ 출 34장 18절

이 부분도 계약법전(출 23: 15)과 평행이 되는 본문으로 아빱월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야 할 무교절(מִצְוַת הַחֹמֶת)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한다.

(3) 신명기와 신명기 관련된 본문에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① 신 16장 1-8절

신 16장 1-8절은 **חֹמֶת**(폐사흐/유월절)에 관한 규례로, 아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날, 출애굽의 날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아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에서”(2, 6, 7절) 지킬 것을 강조한다. 사경 안의 비제사장 본문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던 유월절과 무교절 의식이 이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결합한다. 악마적 요소에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액땀으로 지켜지던 유월절 행사가 처음으로 중앙화된 순례절기로 나타난다. 신 16장 16절에서 무교절을 아훼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일 년에 세 번 지켜야 할 절기로 말하고 있고, 신 16장 1-8절 역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야 할 순례절기로 말하는 것으로 보면, 본래 이 본문은 무교절과 관련된 본문으로 보인다. 이 본문을 신명기의 저자가 제의 중앙화의 목적으로 지방 성소를 순례하는 절기의 성격을 지니는 무교절의 요소를 배제하며 “아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에서 지켜야 할 중앙 절기 성격의 유월절로 편집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16장 1절(“아빱월을 지켜 네 하나님 아훼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빱월에 네 하나님 아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은 출 12장 17절(“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용어만 바뀌고 서로 평행을 이룬다. 신 16장 1절의 저자가 본래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무교절’ 대신에 ‘유월절’이라는 말로 수정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신 16장 1-8절은 아훼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양과 소를 희생 제물로 바칠 것을 명하는데(2절), 비로소 유월절이 중앙화된 국가적 규모의 절기로 발전했음을 보여 준다. ‘액 막음’을 위해 행해지던 고대의 유목민의 피 의식이 신 16장 1-8절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16장 3절에서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8절에서는 다시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해 본문에 혼란을 준다. 이는 무교병에 관한 내용을 유월절에 관한 내용으로 편집적으로 수정하면서 생겨난 혼란으로 보이는데 이 본문에서 지방 성소를 순례하며 지키던 무교절은 이제 장막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야 하는 절기로 세속화된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아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유월절 절기로의 ‘중앙화’와 가정에서 지키는 무교절로의 ‘세속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경에서 무교절 절기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고 있듯이, 본문에서 유월절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며 편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아직 장자의 재앙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에 서로 독립되었던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명기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결합되기에 이른다. 본래 지방의 집에서 ‘액 막음’을 위해 행해진 도살에 기초를 둔 유월절은 그 의식의 독특성을 잃고, 중앙 성소에서 거행되는 순례 축전이 된다. 즉, 신명기 저자들은 그 의식 본래의 가족의 초점을 없애고 대신에 각 가족이 중앙 성소에서 동시에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민족의 축일로 만들면서(신 16: 5-6), 지방의 가정에서 도살하는 본래의 유월절을 중앙화된 제의적 희생 제사로 변형시켰다.³³⁾ 무교절은 다른 방향으로 세속화되었다. 무교절은 신명기의 중앙화 요구와 충돌되는 성격인 지방 제단 순례절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는다. 유월절 준수자들은 중앙화의 요구에 따라 중앙 성소로 순례해 절기를 지키지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바로 이튿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특이한 형태로 변화된다. 무교절은 순례 축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유월절은 중앙화된 순례 희생제사로, 무교절은 세속화된 비순례 가정 절기로 만들면서, 신명기 저자들은 절기력과 관련된 제도와 본문을 편집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

33) Bernard M. Levinson, *윗글*, 69-74쪽.

34) *윗글*, 93-94쪽.

② 출 12장 24-27a절

출 12장 24-27a절을 레빈슨은 원신명기적인(Proto-Deuteronomic) 본문이라 주장한다.³⁵⁾ 반 세터스(J. Van Seters)는 이 부분을 소위 신명기 사가의 삽입으로 간주한다.³⁶⁾ 유월절을 규례와 제사로 이해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교훈을 주는 형식은 신명기적 성격을 가진 본문으로, 신명기 본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출 13장 3-10절

초기의 문서 비평가들은 이 본문을 J 자료로 간주했다.³⁷⁾ 반 세터스 역시 이 본문을 J 기자의 자료로 여긴다.³⁸⁾ 반면에 다수의 학자는 최근에 이 본문을 원신명기적인 본문이라 주장한다.³⁹⁾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순례절기로 여기고, 자녀 교육과 연결하는 것은 신명기의 특징으로 본문은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출 34장 25절

오경의 비제사장계 자료층에서 유월절을 제물을 드리는 제의로 표현하는 독특한 구절로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신명기 사가가 삽입한 구절이라 주장한다.⁴⁰⁾ 이 구절은 신명기 사가의 손길이라기보다는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구절로 보인다.⁴¹⁾

35) 윗글, 61쪽.

36) J. Van Seters, *The Life of Moses—The Yahwist as Historian in Exodus—Number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115쪽.

37) Bernard M. Levinson, 윗글, 68쪽.

38) J. Van Seters, 윗글, 125쪽.

39) Bernard M. Levinson, 윗글, 68쪽.

40) Bernard M. Levinson, 윗글, 69쪽.

41) 여기에 대해서는 저자의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역사 연구: 마틴 노트와 로버트 폴진 이론의 비판적 고찰,” 「구약논단」 26집 (2007년 12월), 30-52쪽;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을 참고하라.

(4) 제사장 자료층에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① 출 12장 1-20절의 유월절과 무교절

출 12장 1-20절을 제사장 자료(P)로 보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한다.⁴²⁾ 그러나 신명기 16장 1-8절에서 중앙화된 국가적인 순례 절기로 묘사된 유월절과 세속화된 가정 절기인 무교절로 결합한 두 절기를 제사장 자료에서 다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며 지키는 가정 절기로 묘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아비월)을 일 년의 첫째 달로 정하고(2절),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막는 피를 바르는 행위(7, 12-13절)와 함께 그 양을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가족 간의 식사로 이날을 야훼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한다. 유목민의 목축 절기였던 유월절이 여기서 P에 의해 출애굽의 열 번째 장자 재앙과 연결되어 야훼의 절기(11절)로 재해석 된다. 제의적인 희생 제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제사와 관계가 없던 마귀적 요소를 제거하는 액 막이의 성격이던 유월절의 피의식이, 출 12장 1-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을 막기 위해 명하신 의식으로 재해석되고, 수정된다. 그러나 가정의 문간(문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도살행위와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유월절 규정은 모든 점에서 이스라엘 제의 풍습과는 구별된다. 이스라엘의 규범적인 희생제사는 제단에서 일어났고(출 20: 24; 레 1: 3; 17: 4; 삼상 14: 31-35), 희생 제물의 피는 제단 위나 제단 밑에 뿌려져야 한다(신 12: 27; 레 1: 5; 17: 6). 계약법전은 동물을 제단에서 도살할 것을 규정한다(출 20: 24). 도살할 동물을 양이나 염소와 같은 작은 가축에 제한하는 것은 유월절의 유목민적인 기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암소나 수소와 같은 큰 가축과 때의 작은 가축들 모두를 포함하는(출 20: 24; 레 1: 2; 17: 3; 민 22: 40; 28: 11 등등) 규범적인 희생제사와는 대조된다. 동물을 삶기보다는 구울 것을 명하는 요리 방법에 대한 진술 또한 이스라엘의 제의 풍습과는 다르다.⁴³⁾ 출 12: 1-14절의 유월절 의식은 이스라엘의 규범적인 제의에 모순되는 파격적인 것으로, 희생 제사라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희생 식사였다.

42) B. S. Childs, *Exodus* (OTL), (London: SCM Press, 1974), 184쪽; J. Van Seters, *윗글*, 115쪽; Bernard M. Levinson, *윗글*, 53-97쪽.

43) Bernard M. Levinson, *윗글*, 79쪽.

무교절에 대한 제사장 자료(P)의 진술인 출 12장 15-20절은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을 강조하며 (15, 19-20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을 경고하며,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을 명한다.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12: 17; 13: 3; 23: 15; 34: 18). 누룩은 발효 과정이 변질과 부패와 연결된 것으로, 타락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교절 한 주간 동안 누룩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해방이 종교적,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나, 신앙적, 도덕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상징한다.⁴⁴⁾ 이렇게 유월절을 다시 가족 단위의 희생제사로, 무교절을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하며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나 회복해야 할 절기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제사장 본문(P)이 포로 상황에서 소단위 가족 절기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야 포로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문의 편집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표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② 레 23장 4-8절

이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특성이 명확히 나타난다. 1월 14일에 유월절 제물을 바칠 것과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한다. 23장 9-14절은 첫 이삭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노트는 이 본문을 '성결법전'이라 주장한다.⁴⁵⁾ 학자들은 '성결법전'이 고대 제사장 자료와 결합하여 제사장 자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러나 많은 학자는 '성결법전'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다. 따라서 '성결법전'을 제사장 자료층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⁴⁷⁾ 이

44) 나훔 M. 사르나, 윗글, 179-181쪽.

45) M. Noth, *Leviticus* (OTL), (London: SCM Press, 1965), 168-171쪽. 레 17-26장은 19세기에 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ue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1899³), 149쪽과 F. Delitzsch, "Pentateuch-kritische Studien. XII. Das Heiligkeitsgesetz," *ZAW* 1 (1880), 619f. 쪽을 참조하라. 1877년에 클로스터만(Klostermann)이 이 부분의 이름을 '성결법전'(Holiness Code; Heiligkeitsgesetz)라고 명명했다.

46) J. Joosten, *People & Land in the Holiness Code -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s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Leiden: Brill, 1996), 5쪽.

본문에는 희생제물의 목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민 28장 19-22절에 나타난다. 정해진 시간과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것은 제사장 전승의 특징이다.

③ 민 9장 1-14절

민 9장 1-14절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단락인 9장 1-5절은 출애굽 2년 1월 14일에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단락인 6-8절에는 시체를 만져 부정한 사람들의 유월절 준수와 관련된 청원이 나타난다. 세 번째 단락인 9-14절에는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들과 여행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지킬 것을 명한다. 이 단락에서는 이방인(ἔθνη)도 그 땅의 거민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듯이 이 부분의 절기와 정확한 시기에 대한 관심은 제사장 자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⁴⁸⁾ 유월절 절기 축전에 참석하지 않는 유대인을 공동체에서 제거할 것을 강조하면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이방인에게 허락할 것을 명하는 내용은 혈통적 개념의 유대 공동체에서 신앙적 개념의 공동체로 신학적으로 발전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본문이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언급하는 것이나 이방인의 유월절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포로 이후의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반영하는 본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④ 민 28장 16-25절

다수 학자는 이 부분을 제사장 자료로 구분한다.⁴⁹⁾ 물론 노트(M. Noth)와 스타디(J. Sturdy)는 이 본문을 제사장 자료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후대에 첨가된 자료로 본다.⁵⁰⁾ 그레이(G. B. Gray)는 이 본문이 에스라 이후의 시대에

47) B. A. Levine, 윗글, 394-5쪽; M. N. van der Meer, *Formation &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SVT 102), (Brill, Boston: Leiden, 2004), 255-415쪽을 참조하라.

48) P. J. Budd, *Numbers* (WBC), (Texas: Word Books, 1984), 96-97쪽; A. F. Campbell/M. A.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Texts, Introductions, Annot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78쪽.

49) P. J. Budd, 윗글, 312쪽.

50) P. J. Budd, 윗글, 313쪽; A. F. Campbell/M. A. O'Brien, 윗글, 195쪽.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드보(J. de Vaux)는 이 본문에서 민수기의 저자를 오경의 다른 부분과 에스겔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조직한 편찬자라고 강조한다.⁵¹⁾ 그레이는 이 본문이 레 23장의 절기력의 틀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본문은 레 23장에 대한 보충으로 보인다.⁵²⁾ 따라서 이 본문은 레 23장의 보완으로 제사장 자료가 포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민 33장 3절

민 33장이 후대의 전승이라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노트는 이 부분이 ‘소위 신명기 사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자 대부분은 제사장 전승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구절의 장소와 절기, 여정에 대한 관심은 제사장 전승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사장 자료인지 제사장 그룹의 ‘편집층’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⁵³⁾

2) 수 5장 10-12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행한 후 길갈에 진 치고 1월 14일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튿날 무교병을 먹었다는 내용과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내용이다. 벨하우젠(J. Wellhausen)은 이 부분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것과 레 23장의 규정을 연결하기 위한 제사장 기자의 노력을 보여 주는 본문이라고 주장한다.⁵⁴⁾ 크라우스와 오토(E. Otto)는 이 본문을 왕정 이전에 길갈에서 유래한 제의 전승으로 여긴다.⁵⁵⁾ 노트는 이 본문을 신명기 사가의 편집에 더해진 ‘제사장 자료 같은’(P-like) 요소로 구분했다.⁵⁶⁾ 노트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날짜, ‘무교병’, ‘바로 그날’ 같은 표현은 신명기 사가가 수집한 신명기 사가 이전의 고대 자료에 덧붙인 후대의 제사장 기자의 첨가로 본다.⁵⁷⁾ 이 본문은 레 23장의 제사장 전승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유월절과 무교병,

51) P. J. Budd. 윗글, 312-313쪽.

52) B.A. Levine, *Numbers 21-36* (ABC), (New York: Doubleday, 2000), 394쪽.

53) P. J. Budd. 윗글, 350쪽.

54) J. Wellhausen, 윗글, 123쪽.

55) H. J. Kraus, “Gilgal. Ein Beitrag zur Kultusgeschichte Israels,” *VT* 1 (1951), 181-99쪽; E. Otto, “Das Mazzotfest in Gilgal.” (*BWANT* 107), (Stuttgart, 1975).

56)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t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Halle: Niemeyer, 1943), 183쪽.

57) M. Noth, *Das Buch Josua* (HAT 1/7), (Tübingen: J. C. B. Mohr, 1953²), 39쪽.

붉은 곡식, 가나안 땅에 진입, 바로 그날,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두 본문이 공유하는 내용이다. 이 본문은 레 23장의 제사장 전승과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 준수를 연결하기 위한 제사장과 관련된 본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 본문에는 중요한 MT 첨가자료가 몇 개 나타나는데 스토이에르나겔(C. Steuernagel)은 이 MT의 첨가자료 역시 P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⁵⁸⁾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여전히 P의 시기와 P가 자료인지 공동체인지에 대한 논쟁적 요소는 남아 있다.

3) 열왕기//역대기의 유월절과 무교절

역대기는 히스기야 시대(대하 30장)와 요시아 시대(대하 35장)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열왕기에는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에 대해 아주 짧게 언급한다(왕하 23: 21-23).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 본문에 나타나는 기록은 “...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아 왕 십팔 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왕하 23: 22-23/대하 35: 18-19)”는 어구가 유일하다. 평행본문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만 있고 무교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히스기야와 요시아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나타난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무교절과 혼합되어 있으며, 그 제물로 양이 등장한다. 요시아의 유월절은 무교절과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제물로 양뿐 아니라 소도 등장한다. 히스기야는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고, 요시아는 ‘모세의 말’, ‘모세의 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되어 있다. 유월절에 소를 양과 함께 잡는 경우는 신 16장에만 규정되었다. 민 28장 16-25절은 소와 양에 대해 언급하지만, 엄격히 무교절 제사 규정으로 등장한다. 출 12장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만 말할 뿐 소를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시아의 유월절 제사는 제물에서 신명기의 유월절 규정과 유사하다. 요시아의 유월절 제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백히 분리하고 있으며, 소와 양을 모두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히스기야의 유월절 제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58) C. Steuernagel, *Übersetzung und Erklärung der Bücher Deuteronomium und Josua und Allgemeine einleitung in den Hexateuch* (HKAT I/3), (Göttingen 1900), 168-169쪽.

제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양만을 잡았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곧이어 7일의 무교절이 지나고, 무교절을 7일 연장하기로 결의한 이후에야 소와 양을 함께 잡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요시야 시대에 대한 왕정시대의 공통자료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만 나타나는데, 이는 신 16장 1-8절에서 중앙화를 위해 순례절기로서 유월절만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 가능하다. 한편, 포로 이후의 역대기 자료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포로 이후에 두 절기에 대한 결합이 이루어졌으며, 출애굽기(non-P와 P 모두)와 신명기(D)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겔 45: 21-24절과 스 6: 19-22절의 유월절과 무교절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에스겔과 에스라 본문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결합하여 있으며, 두 절기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포로의 상황을 반영하는 에스겔 본문(겔 45: 21-24)은 왕 대신 왕자를 의미하는 용어 נָשִׂיא(나시)를 사용하며 그가 온 백성의 대표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범죄 때문에 심판받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속죄제를 드리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에스라 (스 6: 19-22) 본문은 포로의 심판을 받고 이방에서 더럽혀진 경험을 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음을 보도한다.

5. 결론

고대 유목민의 봄철 의식인 유월절과 가나안의 봄철 농경 절기인 무교절이 초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던 절기는 출 23장 15절(non-P)과 출 34장 18절(non-P)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방 성소로 순례하며 지키는 절기 희생 제사였다. 한편, 신명기 법전에서는 제의 중앙화를 위해 순례 절기인 무교절 절기를 유월절과 결합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지방 성소 조항을 폐지하고, 아훼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서만 지키는 국가적 절기로 변화시켰다. 신 16장에서는 무교절에 대한 자료가 유월절에 대한 자료로 편집

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로지에서는 이 두 국가적 절기가 가정 예식 형태로 지켜지며 제사장 그룹(P)에 의해 출 12장 1-20절에서 유월절의 피의식이 열 번째 장자(초태생) 죽음의 재앙과 관련해서 그 재앙에서 구원하는 날로 새롭게 해석되었고 무교절 또한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아훼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는 날로 새롭게 이해되었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공동체가 도덕적신앙적 부패와 타락에서 벗어나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부 제사장 본문에서는 포로 이후의 안정된 상황과 타국인도 절기 행사를 통해 공동체에 포용하기 위한 노력도 보인다(민 9:1-14). 수 5장 10-12절의 경우는 본문과 문서 역사(Textual and literary history)의 차이를 보이며 두 가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며, 오경의 제사장 자료와 시기를 연결하기 위한 후대 제사장 그룹의 본문 비평적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포로 이후 본문인 역대기에서는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국가적인 절기로 고백하고 있다. 에스겔과 에스라 본문에서는 두 절기를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포로 사건과 아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사건으로 이해하며 두 절기 행사를 정결 예식과 속죄제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사상과 관련된 유월절과 무교절이 역사적으로 아훼께서 포로에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속하신 위대하신 행위를 기념하는 날로, 공동체를 정화하고 회복하며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국가적 절기로 종교사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오경의 비제사장 자료층이 제사장 자료층 이전(pre-priestly)의 전승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제사장 자료층의 경우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 이후까지 오랜 기간 축적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P는 단순한 자료가 아닌 공동체의 오랜 축적의 산물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 저자는 오경의 자료층 분석에서 오경의 편집자로서의 제사장 집단의 역할 이외에 다른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분야 연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조심스레 제안하는 것이지, 어떤 단언할 수 있는 결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오경 연구뿐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연구를 위한 더 발전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6. 참고문헌

- 나훔 M. 사르나 저, 「출애굽기 탐험」 박 영호 역, (서울: 솔로몬, 2004).
- 알베르트, 「이스라엘 종교사 I」 (강 성열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원제는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1* (ATDE 8/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사회풍습」 (이 양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 2003).
- 이 은우,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역사 연구: 마틴 노트와 로버트 폴진 이론의 비판적 고찰,” 「구약논단」 제13권 4호 (통권 26집; 발행일: 2007년 12월 31일), 30-52쪽.
- 이 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집 (2008년 9월), 67-86쪽.
- 차 준희, 「출애굽기 다시 보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4).
- 한 동구, 「세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방과 정화 이야기: 출 6장 2절 - 13장 16절의 신학적 분석」 (서울: 한들출판사, 2009).
- Ashby, G. *Go out and Meet Go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 Auld, A. G. *Joshua, Moses and the land: Tetrateuch - Pentateuch - Hexateuch in a Generation of Study Since 1938* (Edinburgh: T&T Clark, 1980).
- _____, “Solomo und die Deuteronomisten eine Zukunftsvision?,” *TZ* 48 (1992), 345-355쪽.
- _____, *Kings Without Privilege: David and Moses in the Story of the Bible's Kings* (Edinburgh: T&T Clark, 1994).
- _____, *Joshua Retold: Synoptic Perspectives* (Edinburgh: T&T Clark, 1998).
- _____, *Samuel at the Threshold: Selected Works of Graeme Auld* (SOTS, Burlington: Ashgate, 2004).
- _____, *Joshua: Jesus Son of Naue in Codex Vaticanus* (Septuagint Commentary Series), Leiden: Brill, 2005).
- Budd, P. J., *Numbers* (WBC), (Waco: Word, 1984).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ae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er Verlag, 1984).
- Campbell, A. F./M. A.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Texts, Introductions, Annotatio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Carr, D. M., *Reading the Fracture of Genesis: Historical and Literary Approach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6).
- Childs, B. S., *Exodus* (OTL), (London: SCM Press, 1974).
- Cross, F. M.,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in the Light of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HTR* 57 (1964), 281-299쪽.
- _____,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Dozeman, T. B. (ed.), *Methods for Exod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Gertz, J. C. K. Schmid/Witte, M. (eds), *Abschied vom Jahwiste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 Gressmann, G., *Mose und seine Zei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3).
- Guillaume, P., *Waiting for Josiah: The Judges* (JSOTSup 385), (London/New York: T&T Clark, 2004).
- Hartley, J. E., *Leviticus* (WBC), (Waco: Word, 1992); 존 E. 하틀리, 「레위기」 (WBC 주석), 김 정열 역, (서울: 솔로몬, 2006).
- Hasel, G. F. "Books of Chronicle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1, G. W. Bromiley (ed.), (Grand Rapids: Eerdmans, 1979): 666-673쪽.
- Keel, O., "Erwaegungen zum Sitz im Leben des vormosaïschen Pascha und zur Etymologie von פסח," *ZAW* 84 (1972), 428-434쪽.
- Kellermann, "מַצֹּתֵי מַצֹּתֵי," *TDOT*, vol. 8,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495쪽.
- Koehler, L/Baumgarte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Leiden: Brill, 2001).
- Kraus, H. J., "Zur Geschichte des Passah-Massot-Festes im Alten Testament." *EvT* 18 (1958), 65-67쪽.
- Kutsch, E., "Erwaegungen zur Geschichte der Passafeier und des Massotfestes." *ZTK* 55 (1958), 34-35쪽.
- Levine, B. A., *Numbers 21-36* (ABC), (New York: Doubleday, 2000).
- Levin, C., "The Yahwist and the Redactional Link between Genesis and Exodu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T. B. Dozeman/K. Schmid(ed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131-141쪽.
- Levinson, B. M.,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53-97쪽.
- May, H. G., "The Relation of the Passover to the Festival of Unleavened Cakes." *JBL* 55 (1936), 65-74쪽.
- McConville, J. G.,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in Modern Scholarship," *Themelios* 22 (1997), 3-13쪽.
- Meyers, C., *Exodus, The New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Nelson, R. D., *The Double Redact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 Noth, M., *Das Buch Josua* (HAT 1/7), (Tübingen: J.C.B. Mohr, 1938, 19532).
- _____,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I.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 (Halle: Max Niemeyer Verlag, 1st ed. (1943), 2nd (1957)), *The Deuteronomistic History*, E. W. Nicholson (tr.), (JSOTS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 Otto, E., "pasaḥ pesaḥ," *TDOT*, vol. 12, 1–24쪽.
- Propp, W. H. C., *Exodus 1–18*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8).
- Rentorff, R., *The Problem of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the Pentateuch*, (JSOTSup 89), J. J. Scullion(t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Rudolph, W., *Der "Elohist" von Exodus bis Josua* (BZAW 68), (Berlin: Tpelmann, 1938).
- Segal, J. B., *The Hebrew Passover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 7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Seitz, G.,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BWANT 93), (Stuttgart: Kohlhammer, 1971).
- Smend, R. Jr., "Das Gesetz und die Völker. Ein 'Beitrag zur deuteronomistischen Redaktionsgeschichte,'" *Probleme biblischer Theologie. Gerhard von Rad zum 70.* H. W. Wolff (Hg.), (München: Geburtstag. 1971).
- _____, *Die Entstehung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W. Kohlhammer, 1981), 110-25쪽.
- Soggin, J. A., *Joshua* (OTL), (London: SCM, 19822).
- Van der Meer, M. N., *Formation and Reformulation: The Redaction of the Book of Joshua in the Light of the Oldest Textual Witnesses*, (Leiden, Boston: Brill, 2004).
- Van Seters, J., "The Pentateuch," *The Hebrew Bible*, S. L. McKenzie/ W. P. Graham (eds.), (Louisville: John Knox, 1998), 3–49쪽.
- Von Rad, G.,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Edinburgh: Oliver & Boyd, 1965).
- Volz, P./Rudolph, W., *Der Elohist als Erzähler: Ein Irrweg der Pentateuchkritik?*, (Giessen: Alfred Toppelman, 1933).
- Westermann, C., *Die Geschichtsbücher des Alten Testaments: Gab es ein deuteronomistisches Geschichtswerk?* (TBü 87),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4).
- de Wette, W. M. L., *Beiträge zu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2 vols.), (Halle: Schimmelpfenning, 1997).
- Winther-Nielsen, N., *A Functional Discourse Grammar of Joshua: A Computer-assisted Rhetorical Structure Analysis* (OTS 40), (Stockholm: Almqvist & Wiksell, 1995).
- Würthwein, E., *Studien zum deuteronomistischen Geschichtswerk* (BZAW, 227), (Berlin: de Gruyter, 1994).

검색어

유월절

무교절

비제사장 자료

제사장 자료

종교사

Religious Historical Study on the Cohesion of the Feasts of Passover(חַג פֶּסַח) and Unleavened Bread ((חַמֵּצוֹת))

Eun Woo Lee, Ph.D.

Professor, Department of Hebrew and Old Testamen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the origin of Passover festival and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reveal how these two festivals were combined through religious historical study. For this study, the author introduces recent research trend of Pentateuch and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using these methodologies.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tries to reveal that in the beginning Passover which was ancient nomadic apotropaic spring ritual and the seven day feast of Unleavened bread, maṣṣōt which was agricultural spring festival of Canaanite

people, existed separately, but later the fact that unleavened bread was to be eaten along with the Passover sacrifice facilitated the joining of the two festivals.

According to the author,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was seasonal sacrifice circulating local sanctuaries in Exod 23: 15 and 34: 18. However, Deut 16: 1-8 constitutes key section adapting the earlier heritage to the centralisation of the cult. By locating the Passover rite in the sanctuary that God will choose, Deut 16:1-8 changes the celebration from an exclusively domestic rite to part of a national gathering—though families might celebrate individually in that central location. In Exile, these two national festivals were celebrated as family ceremony, and the blood ceremony of Passover was reinterpreted as salvation day from calamity related with the death of firstborns and the seven day of Unleavened bread was re—confessed as the liberation day from slavery and captivity related with the exodus by priest group (P) in Exod 12: 1-20.

In post—exilic Chronicles, the feasts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were considered as national festivals which were celebrated by all Israel and Judah together in Jerusalem.

Ezekiel and Ezra understand those two feasts as the retrospective events of captivity caused by their crime and God's grace of recovery and salvation, and connect them with cleansing ceremony and sin offering. Thus, through this study, we can see those apotropaic and mythical ceremonies in ancient district along the shore of the Mediterranean are developing religiously and historically as the day of faith remembering Yahweh's great activity of liberation and deliverance from captivity through the feasts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Keywords

Passover Feast

Unleavened Bread

Non-Priestly Source

Priestly Source

Religious History

■투고일: 2010년 12월 18일

■심사일: 2011년 1월 30일

■게제확정일: 2011년 2월 21일

178 ● 구약논단 제 17권 1호(통권 39집) 2011년 3월 31일